

- 주요 뉴스: 미국 나스닥지수, 1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 통화긴축 완화 기대 감소 등이 반영
 - 유로존 1월 경기심리지수, 7개월래 최고 수준. 에너지 위기 우려 완화 등에 기인
 - 독일 '22년 4/4분기 성장률, 예상 밖 역성장. 경기침체 가능성 재점화
 - 일본은행 총재, 초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FOMC 및 주요 기업 실적발표 앞두고 관련 경계감 등이 영향

주가 하락[-1.3%],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의견 제시 가능성 등이 반영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주식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과도하다는 평가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2%,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기조 지속 전망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
독일은 1월 스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예상치 상회 등으로 8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30.6원, +3.2원) 0.4% 상승, 한국 CDS 상승

		1/30일	1/27일	전일대비			1/30일	1/2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017.8	4,070.6	-1.30%	국채 금리 10y	미국	3.54%	3.50%	3bp
	유럽	454.40	455.17	-0.17%		독일	2.32%	2.24%	8bp
	중국	3,269.3	휴장	0.14%		영국	3.34%	3.32%	1bp
	일본	27,433	27,383	0.19%		CDS 5y	한국	41bp	39bp
	한국	2,450.5	2,484.0	-1.35%	위험 지표	중국	52bp	49bp	3bp
	달러지수	102.23	101.93	0.29%		EMBI+	-	366	-
환율	유로화	1.0851	1.0868	-0.16%		VIX	19.94	18.51	7.73%
	엔화	130.43	129.88	-0.42%		WTI유	77.90	79.68	-2.23%
	위안화	6.7523	휴장	0.48%	원자재	구리	418.3	422.3	-0.94%
	원화	1,227.4	1,231.3	0.32%		금	1,923.1	1,928.0	-0.2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나스닥지수, 1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 통화긴축 완화 기대 감소 등이 반영

- 1/30일 미국 주요 주가지수가 내렸으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개월래 가장 큰 폭의 하락(11,393.8 -1.96%)으로 마감. 이번 결과는 1/31~2/1일 열릴 FOMC 결과가 통화긴축 완화 신호를 기다리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확산 등에 기인
-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이에 따른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FOMC가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된 의구심이 확산. 미국 경제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파월 의장은 재차 인플레이션이 끝난 것은 아님을 강조할 전망(Principal Asset Management)
- 연준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제어를 강조한다면 향후 경기회복이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소지. 한편 일부에서는 금주 주요 기업(Apple, Meta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결과가 당초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
- 최근 블룸버그의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미국 주가가 아직 저점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평가. 또한 35%는 금년 하반기에 저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Morgan Stanley, 최근 미국 주가 상승하지만 매수는 주의할 필요

- 최근 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지만, 증시의 적극적인 참여는 주의가 요구. 이번 상승은 '1월 효과'가 작용한 결과이며,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적극적인 점이 주가 상승을 저해할 가능성. 경기침체가 다가오는 가운데 주가가 상승한다면 이는 매도의 기회

■ 유로존 1월 경기심리지수, 7개월래 최고 수준. 에너지 위기 우려 완화 등에 기인

- 1월 경기심리지수는 99.9를 기록하여 전월(97.1) 및 예상치(97.0) 상회.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큰 폭 하락한 영향 등이 배경. 또한 향후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경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경기심리 개선에 일조

■ 유럽위원회,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경고

-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초안에 따르면, 유럽은 중국의 청정기술 제품(전기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또한 해당 제품의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국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유럽의 2배에 이르며 시장을 왜곡한다고 비판
- 한편 중국 및 미국과의 그린산업 경쟁을 위해 거론되었던 추가 공동 대출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다만 기존에 결정했던 지원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별로는 지원 관련 규정을 완화할 방침

■ 독일 '22년 4/4분기 성장률, 예상 밖 역성장. 경기침체 우려 재점화

- 작년 4/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2%로 3/4분기(0.4%) 및 예상치(0.0%) 대비 낮은 수준. 이는 증가한 에너지 비용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이 영향. 금년 1/4분기까지 경미한 수준의 경기침체가 예상. 다만 이후에는 경기가 안정되고, 금년 중반 이후에는 보다 큰 폭의 경기회복이 가능할 전망(Bloomberg의 Salomon Fiedler)

■ 스페인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상회. 보다 공격적인 통화긴축 가능성 제기

- 1월 소비자물가의 연간 상승률(속보치)은 5.8%로 전월(5.5%) 및 예상치(4.7%) 상회. 이번 결과 발표 이후 시장에서는 ECB가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통화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ECB가 시행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Lombard Odier AM의 Florian Ielpo)

■ 일본은행 총재, 초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

- 구로다 총재는 경제활성화 및 기업의 임금인상 지원을 위해서는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일본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3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시카고 PMI
- 유로존 '22년 12월 성장률, 독일 1월 소비자물가 및 '22년 12월 소매판매
- 중국 '22년 12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소비 및 고용 둔화 등으로 경기침체 회피 기대가 약화 - WSI

(The U.S. Consumer Is Starting to Freak Out)

- 최근 소매매출 둔화, 서비스지출 및 주택판매 감소 등 경제의 성장 동력인 소비의 부진 징후가 포착. 이에 더해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가계의 부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모기지 금리는 작년 가을 20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
- 전문가들은 건조한 소비가 유지될 경우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 그러나 Amazon 등 대기업의 대규모 감원, 임시근로자 해고 증가, 주당 근로시간 감소 등은 가계수입의 감소 가능성을 시사. 또한 제조 및 운송부문 업체들은 향후 소비둔화를 대비한 체제로 전환

■ 미국 증시, 금주 주요 이벤트 앞두고 연초 강세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 - 블룸버그

(Crash Test This Week for Market Versus Real World)

- 최근 러셀2000 스몰캡, 인터넷 플랫폼 주식, 산업용 금속 등 작년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던 자산의 가격이 기술적 주요 저항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일제히 상회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상승세를 지속
- 위험자산 선호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정점 도달 △금리인상 감속 또는 중단 임박 △중국의 전면적 경제활동 재개 △따뜻한 겨울로 인한 유럽 에너지 위기 회피 등이 거론
-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여건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 하락이 어려워지고 고금리 유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금주 미국 월간 고용보고서, FOMC, ECB 회의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을 앞두고 과도하게 강력한 시장의 움직임은 비정상적

■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조절은 명확하나 다음 단계는 불확실 - The New York Times

(Smaller Rate Increase by Federal Reserve Likely as Inflation Cools)

-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의 폭과 지속 기간을 평가. 다수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1/31~2/1일 예정된 FOMC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등을 고려하여 이전보다 작은 폭의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 다만 금년 경기 및 물가전망 관련하여 연준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전망(BNY Mellon의 Sonia Meskin). 시장에서는 소비와 고용이 부진할 경우 연준이 금리인상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나, 일각에서는 가계의 높은 저축 수준과 낮은 실업률로 연준이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 발신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

■ **주요국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준비, 투자자 우려를 초래 - Financial Times**

(Central banks prepare to lift interest rates to 15-year highs as investor jitters grow)

- 금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07~'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 이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징후를 채권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불안 증대
- 미국,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6.5%, 9.2%에 머무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결국 2%에 근접하고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 이는 실제 경제지표 및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와의 시각 차이를 의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몰리면서 미국 국채와 회사채 간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 현재 시장에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자금이 많으며 성장둔화 환경에서는 주식보다 채권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평가(BlackRock)

■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인상의 가시적 경제파급 효과 수준에 좌우될 전망 - WSJ**

(How Quickly Rate Increases Slow the Economy Could Shape 2023 Fed Policy)

■ **미국 은행권, 연체율 증가 등으로 대출기준 강화 및 대손충당금 증액을 추진 - WSJ**

(Banks Brace for More Consumers to Fall Behind on Their Loans)

■ **미국의 우방국 간 반도체 동맹, 중국의 반도체 개발 역량을 저해할 소지 - WSJ**

(U.S.' Tripartite Chip Alliance Should Spook China)

■ **중국 고수익 달러화 채권의 가격 상승, 긍정적 경제전망을 반영 - 블룸버그**

(China Junk Dollar Bond Prices Swing From Record Low to Longest Winning Streak)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